

# 재활용체험학습장 자원순환테마전시관

##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인식 높여



이 치 범

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

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무려 55톤.

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.

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오픈한 자원순환테마전시관.

지난 해 12월 20일 공사가 자원순환테마전시관 개관에 맞춰 재활용 산업 및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, 자원순환형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<재활용 상상 페스티벌>에서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환경 축제가 진행됐다.

특히 다양한 재활용 작품 및 친환경 상품을 확인하는 전시 프로그램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재활용의



▲ 개관식에 참석한 이치범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

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이 동시에 펼쳐졌다.

현재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은 재활용업체에 대한 제품 전시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재활용제품의 소비촉진과 재활용 제품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 학생들이 환경 및 재활용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,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기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월드컵공원 내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새롭게 이전,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전시홀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은 자원회수 시설과 주변 월드컵공원을 연

계하여 재활용 교육, 홍보, 전시, 콘텐츠, 견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.

월드컵공원의 자원순환환경을 갖추고 있는 전시관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내에 위치, 이곳 회수시설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.

관계자는 “마포회수시설은 하루 7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,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는 생산물로 변화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고 전하면서 “쓰레기가 재분류과정을 거친 후 도로바닥재, 포장재, 벽돌 등으로 생산되는 과정과 증기식 공기 예열기구를 거친 후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되는 과정

을 참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자원순환테마전시관은 총 280평 규모에 재활용 산업 현황 등 5개 전시 테마관과 1개 체험 학습장으로 꾸며진 종합 재활용 체험 학습장으로 환경 및 재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.

전시관을 소개하는 <안내관>을 비롯해, 자원 재활용의 이해와 현황, 논구대 4개를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체험하는 <자원순환 이해코너>와 월드컵공원과 연계해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<월드컵공원의 자원순환 환경코너>, 재활용산업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



◀ 자원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전시관



▲ 재활용품을 활용해 제작한 '서울상징미니어처'



▲ 전시관에 마련된 '분리배출체험' 코너

는 <자원순환 자원회수 정보코너>, 미래의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<환경 선진국소개코너>가 주요 구성 콘텐츠. 여기에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해 재활용 창작물을 만들어 보는 체험 학습장도 운영되고 있다.

자원순환테마전시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을 단연 재활용품을 활용해 제작한 기념조형물 <서울상징 미니어처>

이다.

이 작품은 캔, PET병 뚜껑, 종이, 플라스틱 등 버려진 폐기물을 이용해 재활용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서울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, 서울시 25개 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퍼즐 형태로 조합해 서울시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해 상설 전시하고 있다.

자원순환테마전시관은 관람

객들이 '자원순환'을 이해할 수 있도록, 재활용의 정의, 필요성, 재활용 단계 등을 설명하고, 캔, 플라스틱, 유리병 등 국내의 재활용 산업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. 또한 연간 쓰레기 배출량, 종류, 처리방법 등을 소개하고 쓰레기의 자연 분해 기간을 비교, 전시하고 있다. '함께하는 재활용'이라는 취지 아래 일상 생활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. 특히 자원순환테마전시관에 설치된 '자원순환 체험장'은 재활용제품과 친환경상품으로 이뤄진 실물크기의 집을 전시하고 PDP 영상을 통해 생활속의 자원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.

환경선진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자원순환테마전시관.

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으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는 포부 아래 마련된 자원순환테마전시관이 미래자원순환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미래비전 실천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. [K]

박초혜 기자